

영어교육 74권 4호 2019년 겨울  
DOI: 10.15858/engtea.74.4.201912.249

## EFL 고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 변화: 동기, 탈동기, 재동기

김경자\*

**Kim, Kyung Ja. (2019). Changes i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 demotivation, and remotivation. *English Teaching*, 74(4), 249-27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tterns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that changed in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ir elementary to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s from a retrospective perspective. It further examined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demotivation, and remotivation. Participants charted progressions and regressions of their English learning motivation. They then took part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tudents had the highest motivation in their elementary school years. They showed gradual declines as learning time progressed, showing the lowest motivation in their high school years. Motivation factors included teaching methods, curiosity and interest in English classes, and incentives and praise for learning achievements, while textbooks, curriculum, learning failure experiences, and pressure on grades were demotivating factors. Improvements in test scores and English study skills, experiences of success in English learning,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learning English remotivated these students. Identified motivation, demotivation, and remotivation factors differed depending on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Key words:** 영어학습 동기 변화(L2 motivational changes), 동기(motivation), 탈동기(demotivation), 재동기(remotivation), 회고적 관점 (retrospective perspective)

### 1. 서론

결과 중심에 비교되는 과정 중심 연구 방법은 제 2언어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사고 및 연구 체계이다(Dörnyei, 2001). 과정 중심 연구 방법 체계는 지금까지 주로 L2 4기능의 교수 및 학습에 적용되어 읽기,

---

\* 김경자, 교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듣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언어 기능을 결과 중심이 아닌 전-중-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보는 연구 및 교수-학습 체계의 확립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심 연구 및 교수-학습 체계는 단지 언어의 4기능 연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L2 4기능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 동기의 경우, 초기의 L2 연구자들은 학습 동기를 불변하는 고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L2 학습 동기가 어떤 교수-학습 행위 혹은 객체의 작용의 결과라는 소위 결과 중심 연구 방법을 적용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중심 학습 동기 연구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된 고정적인 동기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혹은 이러한 동기 측정치가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행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과정 중심 L2 연구 체계는 결과 중심 동기 연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L2 학습 동기를 불변하고 고정적인 특성을 가진 구인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Dörnyei, 2005, 2009; Jung, 2011; T.-Y. Kim, 2006, 2009; Shoaib & Dörnyei, 2005). 오히려 과정 중심 L2 연구 패러다임은 학습 동기가 고정적인 성격의 구인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구인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과정 중심 L2 동기 연구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동기의 변화 과정을 강조한 Dörnyei(2005, 2009)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Dörnyei의 연구를 토대로, L2 동기 변화의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L2 동기 변화의 양상과 동기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학습자 및 교실 요인들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생성되었다(e.g., 김경자, 2018, 2019; 김태영, 김영미, 김지영, 2017; 김태영, 이유진, 2013; Csizér & Dörnyei, 2005; Csizér & Kormos, 2009).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심 L2 동기 연구들은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기→탈동기(demotivation)→재동기(remotivation)로 이어지는 동기 변화의 전 과정의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왔다. 예컨대, 무동기(amotivation)에서 동기로 이어지는 동기화 과정이나, 동기에서 탈동기로 이어지는 탈동기화 과정, 혹은 탈동기에서 재동기로 이어지는 재동기화 과정에만 국한함으로써 동기 변화 양상의 전체 과정에 대한 조사에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여는 동기 변화의 전체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가 학습자들 개개인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추적 조사해야 하는 연구 방법상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L2 학습 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질적 연구 방법(김태영, 이유진, 2013; 이선미, 김신혜, 2014; Shoaib & Dörnyei, 2005) 또는 혼합 연구 방법(e.g., 김태영 등, 2017; 황정희, 2013)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적 연구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위 양적 연구 방법은 동기 과정 변화의 일부분을 조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기 변화의 전체 과정을 추적 연구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학습자의 동기 변화의 전체 과정을 연구하는 행위는 양적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체계적

인 추적 관찰, 심층 면접 등의 기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과정 중심 동기가 보여주는 제한점을 인식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영어 학습자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동기 변화 양상의 전체 과정을 회고적 관점(retrospective perspective)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의 동기 변화 양상을 통해 그들의 영어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들의 초-중-고 영어학습 동기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3. 영어학습에 대한 탈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4. 영어학습에 대한 재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 2. 이론적 배경

### 2.1. L2 학습 동기 변화 양상

L2 동기 변화 차트(motivational timeline chart)는 일본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L2 학습에서 나이별 또는 시기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기 변화를 회고적 관점에서 표시하게 한 데서 시작되었다(Carpenter, Falout, Fukuda, Trovela, & Murphey, 2009; Murphey & Carpenter, 2008). 이후 L2 동기 변화 차트는 우리나라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e.g., 김경자, 2019; Jung, 2011; Kim & Kim, 2018; Song & Kim, 2017)에서도 사용되어 장기간의 학습 시간에 걸친 L2 동기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를 시각적인 도표로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L2 동기 변화 추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 EFL 대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실용 영어를 바탕으로 한 놀이와 활동 중심의 수업과는 달리, 중2때부터 복잡한 문법 중심의 학습 내용과 그에 따른 교수 방법으로 인하여 동기 저하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Carpenter et al., 2009; Murphey & Carpenter,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중2때 영어학습 동기가 급격히 저하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학습 환경(영어학습의 어려움, 영어 시험 점수의 하락, 따분한 영어 수업), 교수 환경(교사 스타일, 교수 방법, 수업 내용), 학습자 변인(학습 의지, 영어학습의 필요성 인식) 등이 동기 저하 원인으로 규명되었다(Jung, 2011).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영어학습 탈동기가 시작되어, 중학교 시기에 가장 낮은 동기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이 되어 영어학습에 재동기화가 되는 양상을 나타냈다(Kim & Kim, 2018; Song & Kim, 2017). 탈동기화 요인으로는 영어학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사교육에 대

한 높은 의존도, 학습자 자신의 영어학습 목표 부재, 교재 및 교육과정, 사회적 또는 부모의 압력, 교수 방법 등 다양한 이유들이 언급되었다. 국내외에서 학습자의 L2 학습 역사(learning history)를 조명하여 현재를 기점으로 학습 시기 또는 나이에 따른 동기 변화의 패턴을 회고적 관점으로 추적하고, 이에 따른 L2 학습 동기화, 탈동기화, 재동기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L2 동기 변화 차트를 활용하여 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 2.2. L2 학습 동기 요인

L2 학습 동기 연구자들(e.g., 김태영, 2012; Deacon, Murphey, & Dore, 2006; Dörnyei, 2005; Shoaib & Dörnyei, 2005)은 Gardner(1985)의 사회교육적 모형(socio-educational model)과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학습 동기의 가변적인 특성과 동기화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Dörnyei(2005)는 L2 동기적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 모형을 개발하였다. L2 동기적 자아체계 모형에서, L2 학습자가 스스로 만든 바람직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L2를 학습하는 이상적 L2 자아, 학습자 주변 사람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L2 학습하거나 학습 실패로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피하고자 L2를 학습하는 필연적 L2 자아(ought-to L2 self), L2 교육과정이나 교수 방법, 평가, 교실 환경 등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L2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동기화된 행동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상적 자아와 필연적 자아는 L2 학습 경험에 따라 그 수준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 세 요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효과적인 동기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Dörnyei, 2005, 2009).

L2 학습 동기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동기화 과정을 설명한 국내 연구(김경자, 2018, 2019; 김태영, 2012; 김태영 등, 2017; 이선미, 김신혜, 2014; 황정희, 2013)는 제한적이다. 더구나 회고적 방법에 의한 동기 변화를 분석한 연구(김경자, 2019; 김태영, 이유진, 2013)는 더욱 드물다. 면담 기법 또는 학습자 자신의 영어학습 경험을 회고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교수 방법, 태도, 보상과 칭찬 등 교사 요인과 학습자 스스로 영어 학습의 필요성 인식 등이 주요 동기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기화 요인은 학습자의 초-중-고-대학 등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 L2 학습 동기의 역동성과 가변성이 입증되었다(김태영, 2012; Carpenter et al., 2009; Deacon et al., 2006; Murphey & Carpenter, 2008).

## 2.3. L2 학습 탈동기 요인

L2 학습자의 동기는 학습자의 외적 또는 내적 요인에 의하여 낮아지기도 하

는데 이를 탈동기화라고 한다(Dörnyei, 2001). 선행연구에서 교사 특성(능력, 교수 방법, 성품), 부적절한 학습 환경, L2 학습의 어려움, 학습 실패, L2 원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부적합한 교재, 학습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험 성적 등이 L2 학습 탈동기의 외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학습 실패로 인한 학습자의 자신감 저하와 목표 상실, 학습 의지 결여, 학습에 대한 실망감 등이 탈동기 내적 요인으로 언급 되었다(김경자, 2018; Dörnyei, 2001; Falout, Elwood, & Hood, 2009; Jung, 2011; Kim, 2009; Sakai & Kikuchi, 2009). L2 학습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L2 학습 방법에 대한 신념이 낮아지고, L2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 동기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탈동기의 내적·외적 요인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질적 연구에서 제시된 L2 탈동기 요인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령, 초-중-고 영어학습 동기 변화 차트를 표시하고, 자신들의 학습 시기별 동기 변화의 이유를 회고한 고등학생들은 재미없는 수업 교재와 수업 내용,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주요 탈동기 요인으로 언급하였다(Song & Kim, 2017).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회고적 에세이를 통해 초-중-고-대학교 시기의 L2 학습 동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교사의 문법 및 암기식 수업 방법,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신, 차별 대우 등 교사의 부적격 특성을 가장 주요한 탈동기 요인으로 설명하였다(이선미, 김신혜, 2014). 최근의 연구에서는 영어학습의 어려움으로 동기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영어학습 실패로 인한 자신감 부족을 고등학생들이 설명하는 가장 빈번한 탈동기 요인으로 추출하였다(김경자, 2018). 이러한 결과들은 탈동기도 동기 요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습자 요인과 학습 시기, 학습 상황과 학습 경험에 따라 특정 요인이 도출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Carpenter et al., 2009; Murphey & Carpenter, 2008).

#### 2.4. L2 학습 재동기 요인

L2 학습 동기에 대한 중단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내·외적 요인으로 탈동기화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재동기화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탈동기 요인과 마찬가지로 재동기 요인도 학습자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요인으로는 1) L2 학습 시설 개선,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 등 학습 환경 관련 요인; 2) 교수 방법의 다양성, 교사에 대한 호감도 상승 등 교사 요인; 3) 동료 학생과의 경쟁 심리, 가족의 격려 등 주변인의 영향; 4) L2 시험 성적의 향상, L2 학습 방법 터득 등 학습자 요인들이 L2 학습자의 재동기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arpenter et al, 2009; Jung, 2011; Song & Kim, 2017). 한편, 내적 재동기 요인으로는 1) 성공적인 L2 학습으로 인한 자기 효능감 상승, 2) 이어지는 L2 학습 성공에 대한 믿음, 3) L2 학습에 대한 끈기(tenacity), 4) L2 학습의 필요성 인식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학습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신뢰

(self-reliance)가 이어지는 동기적 자율 행동(motivational autonomous behavior)을 이끈다고 하였다(윤진희, 김태영, 2018; Cheng & Lee, 2018; Falout, 2012; Falout, Murphey, Fukuda, & Trovela, 2013). 동기화된 동료 학습자의 영향으로 끈기 있게 L2 학습에 매진한 결과로 얻게 되는 L2 학습 성취 경험은 학습자 자신의 학습 방법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동료의 영향→성취 경험→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과정이 L2 학습의 재동기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경자, 2019; Carpenter et al., 2009; Murphey & Carpenter, 2008). 따라서 L2 학습 재동기 요인은, 탈동기 요인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내적·외적 요인들이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L2 학습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Dörnyei, 2001).

L2 학습 경험을 회고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연령, 학습 시기, 영어 능력 별 동기 변화를 조사한 질적 연구에서는 상급 학교 입학 준비, 동료와의 경쟁심, 학습 방법에 대한 자기 효능감, L2 학습의 중요성 인식,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 등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들이 탈동기화된 L2 학습자를 다시 동기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김경자, 2019; Kim & Kim, 2018; Song & Kim, 2017).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오랜 기간에 걸친 L2 학습 경험을 회고적 에세이 또는 인터뷰 기법으로 조사하여 학습 시기별로 동기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L2 학습 동기 과정이 동기→탈동기→재동기→탈동기→재동기 등 각각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된 하나의 역동적인 연속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L2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수업 환경 요인들이 이러한 동기-탈동기-재동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L2 학습자의 현재의 학습 동기 수준은 학습자 자신의 과거의 긍정적·부정적 학습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Carpenter et al., 2009; Murphey & Carpenter,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L2 학습 경험에 대해 인터뷰 기법으로 회고하게 하여 그들의 초-중-고 동기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L2 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018 광주 교육 종합 만족도 조사(수업, 생활 교육, 진로 진학, 안전 환경 영역 등)에서 연구 대상 학교 재학생들의 평가 점수가 광주광역시 전체 고등학교들과 비교하여 상위 10%이내에 속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초-중-고 영어학습 동기 변화 차트 작성 및 후속 인터뷰가 있음을 설

명하였다. 한 개 반 28명중 자료 수집에 동의한 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중1때인 2015년에 시험이 없는 대신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 수업 중심인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16명은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초1(13명) 또는 유치원(3명) 때 부터 영어학습을 시작하였다.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학습 동기 수준을 회고하였을 때, 초등학교 때 최고로 높았다는 응답자가 14명이었고, 반면 동기가 가장 낮았을 때는 고(10명), 중(9명), 초(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당시 학원, 과외 등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공개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성적은 70~79점 사이와 59점 이하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고, 90점 이상은 3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동기 변화 수준과 영어 능력

	영어학습 동기 수준			영어 사교육		영어 능력				
	초	중	고	한다	안한다	0-59점	60-69점	70-79점	80-89점	90-100점
최고	14 <sup>a</sup>	4	3							
최저	2	9	10	12	9	5	4	5	4	3

주. <sup>a</sup>응답자 수(명)

### 3.2. 연구 도구

#### 3.2.1. L2 동기 변화 차트

학생들의 초-중-고 동기 변화 추적은 Murphey와 Carpenter(2008)의 동기 변화 차트를 활용하였다. 동기 변화 차트는 연령별, 학습 시기별, L2 수준별로 수집된 학습자의 동기 변화의 추이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경자, 2019; Carpenter et al., 2009; Falout et al., 2013; Jung, 2011; Kim &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21명의 모든 참여자가 영어 교육을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구 참여 당시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년별로 자신의 동기 변화를 회고적 관점에서 6점 척도(+3 = 가장 높다, -3 = 가장 낮다)로 표시하게 하였다. 표 2는 동기 변화 차트의 예시이다.

#### 3.2.2. L2 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에 대한 인터뷰 문항

연구에 참여한 L2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듣고, 그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Murphey(1999), Shoaib와 Dörnyei(2005), Carpenter 등(2009), Kim과 Kim(2018)의 연구 방법을 참조하였다. 이들 연구

**표 2**  
**연구 참여자의 초-중-고 동기 변화 차트**

동기 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	v								
+2		v	v						
+1					v			v	
-1				v		v			v
-2							v		
-3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 인터뷰 문항을 개발하였다. 인터뷰 질문에는 학습자의 초-중-고 영어학습 환경, 긍정적·부정적 영어학습 경험, 영어학습을 하는 이유, 학습 목표와 방식, 영어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교사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래 질문은 반구조화 인터뷰 문항의 예시이다.

1. 초-중-고 영어학습 분위기가 어땠나요?
2. 영어학습 중에 어떤 즐거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3. 영어학습을 왜 계속하고 있나요?
4. 영어학습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하나요?
5.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6. 초-중-고 영어 선생님과 관계는 어땠나요?
7. 초-중-고 영어 수업에 만족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왜 잃어버렸나요?
9.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되찾았나요?

인터뷰 참여자 선발 기준은 동기 변화 차트에서 초-중-고 영어학습 과정 중 탈동기를 경험했다가 다시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표시한 참여자이다. 또한 현재 학습자의 영어 능력 수준이 그들의 동기, 탈동기, 재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영어 능력 수준도 인터뷰 참여자 선발 기준에 포함되었다.

### 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초-중-고 동기 변화 차트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영어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탈동기와



재동기를 경험한 학생들 중 영어 능력 상위와 하위 집단에서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19년 8월에 동기 변화 차트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3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영어 능력별 기말고사 평균값과 초-중-고 동기에서 최고와 최저 수준을 나타냈을 때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상위 집단(학생 번호 1~5)의 최고 및 최저 동기 수준이 하위 집단(학생 번호 6~10)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인터뷰 참여자(n = 10)

	영어 점수	최고 동기 수준(변환)	최저 동기 수준(변환)
상위 집단(1~5)	86.4(12.7 <sup>a</sup> )	5.44	3.87
하위 집단(6~10)	47.2(20.8)	4.36	1.51

주. <sup>a</sup>표준편차

동기 변화 차트 수집 후에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생들의 일정에 따라 하루 1~3명씩 총 5일이 걸렸으며, 각 학생 마다 인터뷰 시간은 25~55분가량이 소요되었으며, 10명에 대한 총 인터뷰 시간은 370분이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고, 연구자에 의해 전사되었다.

### 3.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의 초-중-고 영어학습 동기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기 변화 차트에 -3부터 +3까지의 점수를 6점 척도(-3=1, -2=2, -1=3, +1=4, +2=5, +3=6)로 변환하였다(Carpenter et al., 2009; Falout et al., 2013). 참여자의 응답 값을 변환 점수화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21명에 대한 평균값을 바탕으로 초-중-고 동기 변화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학생들이 영어학습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사된 인터뷰 자료는 Glesne(1999)의 일반적 전략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동기-탈동기-재동기 요인에 관련된 인터뷰 데이터를 할당하는 대신에, 인터뷰 데이터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귀납적으로 동기-탈동기-재동기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찾아 코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범주화된 자료에는 표제를 부여하였다. 또한 표를 활용하여 범주화된 자료를 정리하여 표제 간 위계를 설정하였고, 추출된 요인에 대해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Creswell, 2009; Miles & Huberman, 1984). 인터뷰 데이터의 분석 과정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방법 전문가와 데이터 코딩, 범주화 과정 및 결과의 일부를 공유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동기, 탈동기, 재동기화 요인들과 비교 검토되었다(Creswell, 2009).

본 연구에서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에 대한 분석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동기: 영어학습에서 첫 탈동기가 나타나기 전의 영어학습 동기
2. 탈동기: 학습 시기, 동기 강도에 상관없이 동기가 낮아진 경우
3. 재동기: 탈동기후 학습 시기, 동기 강도에 상관없이 다시 동기가 높아진 경우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영어학습 동기 변화 양상

표 4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초3-중-고2까지의 영어학습 동기 변화를 나타낸다. 동기 차트에 표시된 점수를 6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는 학교 영어 교육이 시작되는 초3( $M = 4.86$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 동기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시기인 고2( $M = 2.62$ )때 가장 낮은 동기 수준을 보였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초-중-고 동기 변화 양상

동기 수준 (변환 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 (6)	6 <sup>a</sup>	6	6	5	5	3	3	2	1
+2 (5)	8	6	5	3	4	2	1	1	2
+1 (4)	5	7	7	8	5	2	4	4	2
-1 (3)	2	1	2	3	4	8	6	4	5
-2 (2)	0	1	1	2	2	3	4	5	5
-3 (1)	0	0	0	0	1	3	3	5	6
평균 점수	4.86	4.71	4.62	4.29	4.14	3.29	3.24	2.86	2.62

주. <sup>a</sup>응답자 수(명)

영어학습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기가 낮아지는 이러한 동기 변화 양상은 선행 연구(Jung, 2011; Song & Kim, 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초3때 동기가 가장 높은 이유는 연구 참여자 특성과 영어 교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 21명 중 16명(76%)이 유치원 또는 초1때부터 영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게는 조기 교육에서 놀이나 활동 중심의 즐거운 영어 수업이 영어 공교육 시작인 초3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3 공교육을 통해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재미있게 즐기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이 놀이나 활동 중심이어서 학생들이 영어 교과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2때 가장 낮은 동기를 나타낸 이유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므로 이미 고1때부터 대학 입학 준비

의 일환으로 영어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문법, 독해, 문제 풀이 등 교사의 설명 위주의 영어 수업 방식에 학생들의 동기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과거 영어학습 경험을 회고하면서 표시한 초-중-고 동기 변화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이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는 초3때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중1까지는 해마다 완만하게 저하되는 양상( $M = 4.86 \sim 4.14$ )을 보이다가 중2때( $M = 3.29$ )때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중1~중2 구간의 갑작스런 동기 감소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1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의 지필 고사가 없는 대신 토론, 참여, 실습 중심의 수행 평가로 평가를 대체하는 자유학기제를 보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영어 수업을 경험하면서 초등학교 때와 비슷한 영어학습 동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2때 영어를 포함한 학교 시험이 다시 시작되면서 흥미로웠던 영어학습이 문법, 독해, 암기 등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영어 수업으로 바뀌어 학생들의 동기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초-중-고까지의 영어학습 동기 변화를 분석한 Song과 Kim(2017)의 연구에서는 중2~중3 구간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나타냈다.

그림 1  
전체 연구 참여자의 초-중-고 동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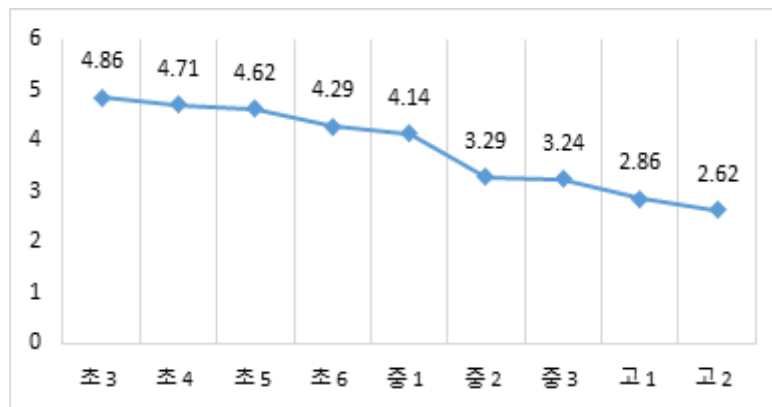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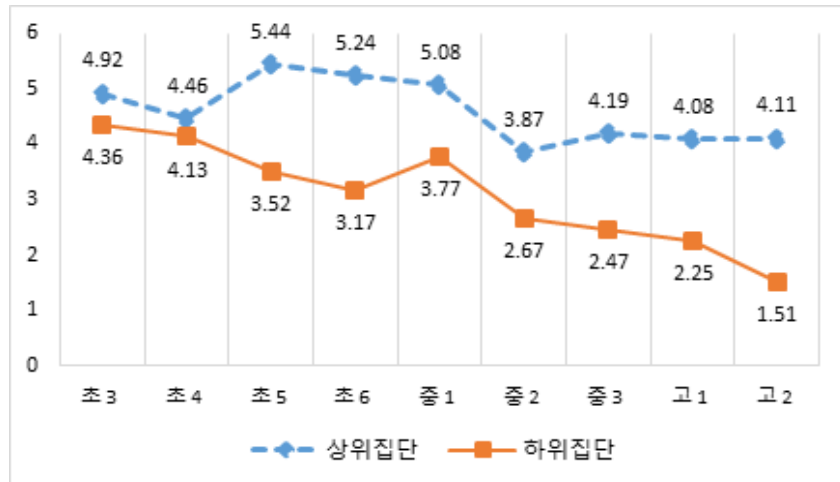


그림 2는 인터뷰 대상자인 10명에 대해 영어 능력에 따른 초3-중-고2의 동기 변화 양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위집단( $M = 3.87 \sim 5.44$ )의 영어학습 동기가 하위집단( $M = 1.51 \sim 4.36$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상위집단은 동기(초3)→탈동기(초4)→재동기(초5)→탈동기(중2)→재동기(중3)를 보이며 영어학습 과정에서 탈동기화와 재동기화 과정을 반복하여 경험하였다. 이들은 특히 초4때 탈동기 후 초5때( $M = 5.44$ ) 다시 부여된 재동기 수준이 중1( $M = 5.08$ )까지 꾸준히

그림 2  
영어 능력에 따른 학습자의 초-중-고 동기 변화



유지되고 있으며, 다시 중2때 탈동기 후 재동기화된 중3( $M = 4.19$ )의 동기 수준이 고 2( $M = 4.11$ )까지 여러 해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위집단의 높은 영어 성적이 이들의 동기화를 지속하게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높은 수준의 영어학습 동기가 높은 영어 성적을 유지하게 했을 수도 있다.

반면, 하위집단은 동기화(초3)→탈동기(초5~초6)→재동기(중1)→탈동기(중2~고 2) 과정을 보였다. 이들은 초5때 탈동기 후, 중1( $M = 3.77$ ) 시기에 재동기를 한 차례 경험했으며, 이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동기 수준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하위집단은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3때 가장 높은 동기 수준을 보였다가 학습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계속 낮아졌다가, 자유학기제인 중1때 잠시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다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탈동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동기 변화 양상은 영어 성적과 동기 수준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앞서 설명한 영어 능력 상위집단과 차이가 있다.

#### 4.2. 영어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

표 5는 영어 능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각각 5명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영어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을 범주화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기준(김태영, 이유진, 2013; 이선미, 김신혜, 2014; Carpenter et al., 2009; Jung, 2011; Shoaib & Dörnyei, 2005)을 참고하여 5개의 상위요인(학습 환경적, 영어 수업, 도구적, 학습 경험, 주변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각의 상위요인에 대해 2~5개의 하위요인들을 함께 분류하였다.

표 5  
영어학습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

상위요인	동기	탈동기	재동기
학습 환경적 요인	교사의 수업 방법	교사의 수업 방법	교사의 수업 방법
	교사의 자질	교사의 자질	교사의 자질
수업 요인	교재	교재	교재
		교육과정	교육과정
도구적 요인			교수 매체의 활용
	호기심, 흥미	학습의 어려움	영어학습의 필요성 인식
학습 경험 요인	보상, 칭찬	수업의 강제성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
		영어 성적 하락	영어 성적 향상
주변인 요인			상급학교 진학
	성취감	영어학습 실패 경험	성취감
주변인 요인	학습에 대한 자신감	학습 자신감 결여	학습 방법에 대한 자신감
	성적 부담감 감소	성적 부담감 상승	학습 성공에 대한 기대감
주변인 요인		학습 목표, 의지 상실	자신의 학습 목표 설정
		시험 불안	시험 불안
주변인 요인	부모의 격려	동료와의 경쟁심	동료와의 경쟁심
	영어원어민에 대한 태도	주변인의 기대	사회적 압력

#### 4.3. 영어학습 동기 요인

본 연구에서는 동기와 재동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영어학습 경험에서 강도에 상관없이 첫 탈동기가 나타나기 전의 동기를 영어학습 동기로 간주하였다. 상위집단( $M = 4.92 \rightarrow 4.46$ )과 하위집단( $M = 4.36 \rightarrow 4.13$ )은 각각 초4때 탈동기가 나타났으므로 동기 요인은 초3의 영어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표 6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영어학습 동기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김태영, 이유진, 2013; 이선미, 김신혜, 2014; Song & Kim, 201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어 능력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방법, 영어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학습 성공에 대한 보상과 칭찬 등 긍정적인 부분을 동기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학생 2와 6은 초3때 영어 수업을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고, 칭찬과 보상이 있는 재미있는 수업으로 회고하였다. 특히 초3 영어 수업에서 학습 성공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학생 8을 포함하여 8명이 언급하였다.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게임, 노래, 동영상 등 흥미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영어학습이 어린 학습자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학습 자신감을 부여하여 영어를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쉬운 과목으로 인식

표 6  
영어학습 동기 요인

상위요인	하위요인	상위집단(n=5)	하위집단(n=5)
학습 환경적 요인	교사의 수업 방법	5 <sup>a</sup>	5
	교사의 자질	4	2
	교재	4	3
수업 요인	호기심, 흥미	5	5
도구적 요인	보상, 칭찬	5	5
학습 경험 요인	성취감	4	4
	학습에 대한 자신감	5	3
	성적 부담감 감소	5	3
주변인 요인	부모의 격려	3	4
	영어원어민에 대한 태도	3	4

주: <sup>a</sup>각 요인의 언급 빈도

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흥미 위주의 수업을 구성하고,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하는 것은 교사의 자질과 연관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초3의 영어 학습 동기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전에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다가 3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었어요. 외국 선생님이 게임, 그림 그리고, 시험 없고, 퀴즈를 보긴 했는데 쉬었어요. (상위집단 #2)

영어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때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별 모양 스티커를 주셨어요. 그거를 모으면 학기말 때 스티커를 도서 상품권이 나 초콜릿, 음료로 바꿔주었는데 그때는 스티커 타려고 열심히 했어요. 스티커를 받을 때 칭찬 같은 좋은 말도 들으니까 영어 수업이 재미있었죠. (하위집단 #6)

돌이켜보니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처음 배우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다 잘했고 사회나 과학은 그 때도 싫어했는데 영어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영어는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위집단 #8)

#### 4.4. 영어학습 탈동기 요인

영어학습 탈동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초3에서 고2까지의 학습 기간 동안 동기 강도에 상관없이 동기가 저하된 경우를 탈동기로 간주하였다. 총 9개 학

년 중 상위집단은 5개 학년에서, 하위 집단은 7개 학년에서 탈동기를 경험하였다. 특히 상위집단은 중1~중2( $M = 5.08 \rightarrow 3.87$ )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학년 간 탈동기는 비슷한 수준의 동기 강도(e.g., 중3~고1:  $4.19 \rightarrow 4.08$ )를 나타냈다. 반면, 하위집단은 초4~초5( $M = 4.13 \rightarrow 3.52$ ), 중1~중2( $M = 3.77 \rightarrow 2.67$ ), 고1~고2( $M = 2.25 \rightarrow 1.51$ )의 3개 구간에서 동기가 비교적 많이 낮아졌다. 따라서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빈번하게, 더 강도 높은 영어학습 탈동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영어 능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인터뷰 자료에서 도출된 영어학습 탈동기 요인이다. 두 집단은 수업 교재, 교육과정, 영어학습의 어려움, 성적 부담감 상승을 주요한 탈동기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탈동기 요인은 여러 선행연구(김경자, 2018; 이선미, 김신혜, 2014; Carpenter et al., 2009; Jung, 2011; Song & Kim, 2017)에서도 보고되었다.

표 7  
영어학습 탈동기 요인

상위요인	하위요인	상위집단( $n=5$ )	하위집단( $n=5$ )
학습 환경적 요인	교사의 수업 방법	3 <sup>a</sup>	5
	교사의 자질	3	5
	교재	4	5
	교육과정	5	4
수업 요인	학습의 어려움	3	5
	수업의 강제성	3	4
도구적 요인	영어 성적 하락	3	5
학습 경험 요인	영어학습 실패 경험	1	5
	학습 자신감 결여	1	5
	성적 부담감 상승	4	5
	학습 목표, 의지 상실	2	5
	시험 불안	3	5
주변인 요인	동료와의 경쟁심	5	2
	주변인의 기대	4	3

주. <sup>a</sup>각 요인의 언급 빈도

학생 1과 9는 시험 부담 없이 참여,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서 일반 학기로 전환된 중2때 시험에 대한 부담감, 동료와의 경쟁심, 영어학습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이 시기에 탈동기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하다 중2때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시험에 대한 부담, 성적에 대한 부담이요. 1학년 때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다른 애들은 어떤지 걱정도 됐고 힘들었어요. (상위집단 #1)

중1때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좋았는데 다시 시험을 보고 영어책을 보니까 영어는 이제 역시 어렵구나 생각 했어요. 영어 체험 마을 다니면서 즐겁게 배우다가 갑자기 문법 공부하니까 어렵고, 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니까 학원에서 문법, 단어 공부 많이 했어요. (하위집단 #9)

한편, 학습 경험 요인 중 영어학습 실패 경험과 이로 인한 학습 자신감 결여 및 학습 목표 및 의지 상실 요인에 대해 언급한 참여자 수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차이가 났다. 학생 8, 10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하위집단의 학습자들이 영어학습 실패로 인한 자신감 결여, 주변인(엄마)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학습 목표 상실, 학습의 강제성으로 인한 탈동기화를 언급하고 있다(김경자, 2018).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분석 결과이므로 보다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탈동기 요인들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내신도 대비해야 하니까 영어를 공부하죠. 학원을 다녔는데 성적이 내가 한 대로 안 나와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해요. 지금도 공부해 해도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위집단 #8)

영어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단어를 외웠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있어요. (하위집단 #10)

#### 4.5. 영어학습 재동기 요인

영어학습 재동기는 탈동기후 동기 강도에 상관없이 동기가 상승한 경우로 보았다. 상위집단의 경우, 초4~초5( $M = 4.46 \rightarrow 5.44$ ), 중2~중3( $M = 3.87 \rightarrow 4.19$ ), 고1~고2( $M = 4.08 \rightarrow 4.11$ )의 3개 구간에서 재동기를 경험하였으나, 하위집단은 초6~중1( $M = 3.17 \rightarrow 3.77$ ) 구간에서만 단 한차례 재동기를 나타냈다. 따라서 초-중-고 영어학습 기간 동안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빈번하게, 더 높은 강도로 동기가 다시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각 재동기 요인에 대해 인터뷰에서 언급한 집단 별 참여자 수를 보여준다. 하위집단은 교사의 수업 방법과 자질, 교수 매체와 같은 학습 환경적 요인을, 상위집단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학습의 필요성 인식, 학습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과 기대감 등 학습 경험 요인과 동료 학생과의 경쟁 동기를 주



요한 재동기 요인으로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동기 요인의 대부분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다(김경자, 2019; Falout, 2012; Falout et al., 2013; Kim & Kim, 2018; Song & Kim, 2017).

표 8  
영어학습 재동기 요인

상위요인	하위요인	상위집단(n=5)	하위집단(n=5)
학습 환경적 요인	교사의 수업 방법	2 <sup>a</sup>	4
	교사의 자질	2	4
	교재	2	2
	교육과정	3	2
	교수 매체의 활용	3	4
수업 요인	영어학습의 필요성 인식	5	3
	학습자 참여 중심 수업	3	4
도구적 요인	영어 성적 향상	4	5
	상급학교 진학	5	3
학습 경험 요인	성취감	5	4
	학습 방법에 대한 자신감	5	2
	학습 성공에 대한 기대감	5	2
	자신의 학습 목표 설정	5	2
	시험 불안	3	1
주변인 요인	동료와의 경쟁심	4	1
	사회적 압력	4	1

주: \*각 요인의 언급 빈도

상위집단 학생 3은 초6때 탈동기를 경험하고, 초등학교 시절이 끝나는 겨울 방학 때 영어 교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동기화 되었음을 회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영어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영어학습 목표가 명확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믿음과 학습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생 4는 중2때 탈동기를 경험하였으며, 중3때 영어 성적이 향상되어 성취감을 맛보고 재동기화 되어, 자신의 영어학습 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집단 학습자들이 언급한 자신에 대한 신뢰, 성취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열의와 자신감 등의 긍정적인 자기 개념(self-concept)은 탈동기후 재동기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Falout, 2012; Falout et al., 2013)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초 6학년 때 영어가 어려워서 안 하다가 겨울 방학 때 중학생인데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영어 중요하잖아요. 겨울 방학 때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에요. 제가 도전하는 목표가 있어요. 다른 과목

들도 관리하고 있고, 영어 성적도 중요해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니까 공부 해야죠. (상위집단 #3)

중2 때 못했는데 중3 때 영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책을 외우다시피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좋았어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가 재미있기도 하고, 할수록 갈피가 잡히고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위집단 #4)

반면, 하위집단의 학생 7은 초등학교 때 탈동기화 되었다가, 중1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 다양한 교수 매체의 활용 등 (Jung, 2011; Song & Kim, 2017)으로 영어학습에 재동기화 되었다. 그러나 중2때 다시 영어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학습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영어학습을 포기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학생 7의 낮은 수준의 재동기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 학습의 어려움 같은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다시 탈동기를 경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싫어해서 어려우니까 외울 것도 많았어요. 계속 안하니까 나중에는 제일 쉬운 것 빼고는 다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땀가 시험 안보고, 영어 마을 구경가고, 보드 게임도 하고, 포스터 만들어서 발표하고, 연극도 했는데 좋았어요. 2학년때 시험을 보니까 영어는 역시 어렵다 포기했죠. (하위집단 #7)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고적 관점에서 그들의 초-중-고 영어학습 동기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영어학습 경험에서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들을 정성적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영어 교육 첫 해인 초3때 가장 높은 영어학습 동기를 가졌다가 학습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고2인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동기를 보였다. 동기 변화 양상은 현재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초3~고2까지 9개 전체 학년 구간에서 상위집단의 동기 수준이 하위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어학습 동기 요인으로는 영어 능력에 상관없이 교사의 수업 방법, 영어 수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과 칭찬 등이 언급되었다. 탈동기에 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교재, 교육과정, 영어학습의 어려움, 성적 부담감 상승을 주요한 탈동기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빈번하게, 더 강도 높은 영어학습 탈동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재동기는 총 9개 학년 구간 중 상위집단은 3개 구간에서 재동

기를 경험하였지만, 하위집단은 1개 구간에서만 재동기를 보였다. 재동기 요인으로 하위집단은 교사와 교수 매체와 같은 학습 환경적 요인을, 상위집단은 학습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과 기대감 등 학습 경험 요인과 동료 학생과의 경쟁 동기를 주요한 재동기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EFL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동기 변화 양상에서 영어 능력에 상관없이 중1~중2 구간에서 가장 급격한 탈동기가 나타났다. 이는 중1 자유학기제를 통해 시험 부담 없이 토론, 실습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다시 시험 중심의 일반 학기제로의 복귀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영어학습에 즐겁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험 불안, 학습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평가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하위집단의 학습자들은 단 1회의 재동기를 경험하였는데 이들의 주요한 재동기 요인은 자유학기제 때 경험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동기 수준이 낮은 하위집단의 학습자의 탈동기를 예방하고, 오히려 동기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어 능력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방식 및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영어 수준에 상관없이 성취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영어학습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자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개발이 절실하다.

연구 참여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초-중-고 동기 변화 양상, 동기·탈동기·재동기 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할 당시인 고2 영어 기말고사 자료만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들의 초3~고1의 영어 성취도도 본 연구와 같이 상위·하위로 동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초-중-고 각각의 영어 성취도 자료와 함께 동기 변화 양상과 동기·탈동기·재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한 개 반을 대상으로 회고적 관점에서 동기의 변화를 분석했으므로 다양한 영어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에는 학년 수준, 학습 환경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추적 분석법을 활용한 영어학습 동기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경자. (2018).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 변화에 대한 혼합 연구 방법론적 접근: 동기에서 탈동기. *영어교과교육*, 17(4), 75-93.
- 김경자. (2019). EFL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재동기 요인: 영어 능력에 따른 차이. *중등영어교육*, 12(4), 27-47.
- 김태영. (2012). 한국 초·중등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 및 제 2언어 자아 분석:

- 정성적 인터뷰 접근법. *영어학*, 12(1), 67-99.
- 김태영, 김영미, 김지영. (2017). 영어 학습자들의 회복탄력성, 영어학습 동기 및 탈동기: 혼합 연구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69, 61-94.
- 김태영, 이유진. (2013). 자서전적 에세이를 통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와 탈동기: 회고적 재구성. *응용언어학*, 29(1), 37-68.
- 윤진희, 김태영. (2018).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따른 그릿, 영어학습 탈동기화 및 재동기화. *현대영미어문학*, 36(4), 303-329.
- 이선미, 김신혜. (2014).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동기 및 탈동기 요인. *언어과학연구*, 68, 287-312.
- 황정희. (2013). 대학 교양영어 수강자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동기 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 *영어교과교육*, 12(1), 97-121.
- Carpenter, C., Falout, J., Fukuda, T., Trovela, M., & Murphey, T. (2009). Helping students repack for remotivation and agency. In A. M. Stoke (Ed.), *JALT 2008 Conference Proceedings* (pp. 259-274). Tokyo: JALT.
- Cheng, A., & Lee, C. (2018). Factors affecting tertiary English learners' persistence in the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journey. *System*, 76, 170-182.
-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sizér, K., & Dörnyei, Z. (2005). Language learners' motivational profiles and their motivated learning behavior. *Language Learning*, 55, 613-659.
- Csizér, K., & Kormos, J. (2009). Learning experiences, selves and motivated learning behavior: A comparative analysis of structural models for Hungarian secondary and university learners of English.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8-119).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Deacon, B., Murphey, T., & Dore, P. (2006). Knowing our students through language learning histories. In K. Bradford-Watts, C. Ikeguchi, & M. Swanson (Eds.), *JALT 2005 Conference Proceedings* (pp. 243-251). Tokyo: JALT.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Rochester, NY: Plenum.
- Dörnyei, Z.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London, UK: Longman.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Falout, J. (2012). Coping with demotivation: EFL learners' remotivation processes. *TESL-EJ*, 16(3), 1-29.
- Falout, J., Elwood, J., & Hood, M. (2009). Demotivation: Affective states and learning

- outcomes. *System*, 37, 403-417.
- Falout, J., Murphey, T., Fukuda, T., & Trovela, M. (2013). Japanese EFL learners' remotivation strategies. In M. Cortazzi & L. Jin (Eds.), *Researching cultures of lear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pp. 328-349).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UK: Arnold.
- Glesne, G.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New York, NY: Longman.
- Jung, S. K. (2011). Demotivating and remotivating factors in learning English: A case of low level college students. *English Teaching*, 66(2), 47-72.
- Kim, K. J. (2009). Demotivating factors i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English Teaching*, 64(4), 249-267.
- Kim, T.-Y. (2006). L2 learning motivation from a sociocultural theory perspective. *English Teaching*, 61(4), 51-76.
- Kim, T.-Y. (2009). The dynamics of L2 self and L2 learning motivation. *English Teaching*, 64(3), 133-154.
- Kim, T.-Y., & Kim, J.-Y. (2018). Remotivation strategies for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1), 50-77.
- Miles, M., & Huberman, A. (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 Murphey, T. (1999). Publishing students' language learning histories: For them, their peers, and their teachers. *The JALT Materials Writers SIG Newsletter*, 7(2), 8-11, 14.
- Murphey, T., & Carpenter, C. (2008). The seeds of agency in language learning histories. In P. Kalaja, V. Menezes, & A. M. F. Barcelos (Eds.), *Narratives of learning and teaching EFL* (pp. 17-34).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Sakai, H., & Kikuchi, K. (2009). An analysis of demotivators in the EFL classroom. *System*, 37, 57-69.
- Shoaib, A., & Dörnyei, Z. (2005). Affect in lifelong learning: Exploring L2 motivation as a dynamic process. In P. Benson & D. Nunan (Eds.), *Learners' stories: Differences and diversity in language learning* (pp. 22-41).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B., & Kim, T.-Y. (2017). The dynamics of demotivation and remotivation among Korean high school EFL students. *System*, 65, 90-103.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경자

교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Email: kyung9@chosun.ac.kr

Received on November 4, 2019

Reviewed on November 29, 2019

Accepted on December 8, 2019